박태원 교수의 ⑳

불교로 보는 인생

생각하는 힘

결핍과 불완전 벗어나 생명진화의 희망찾기

200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으로 생성되고, 45억 년 전에는 지구가 생겨난다. 다시 40억 년 전의 지구 위에 생명체가 등장하고, 이어 단세포 생물-다세포 생물-어류-파충류-포유류-영장류의 순으로 생명계는 진화한다. 500만년 전, 마침내 인간의 직계 조상이라 할 생명체가 지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지구위 인간 역사의 막이 올랐다. - 현재 수준의 자연과학적 언어가 구성해 보는 생명 탄생과 진화의 그림이다.

그렇게 출발한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과는 현저히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고도의 사유 능력이 돋보인다. 어느 시점부턴가, 그 어떤 인연을 계기로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복잡하고도 수준 높은 의식활동을 전개시킬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다. 인간 뇌의 구조나 기능의 진화 과정은 아마도 이 의식 발달의 과정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이 획기적 단계에 돌입한 이후, 인간은 그 유별난 '생각하는 힘'을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키고 또 표현한다. 문화와 문명의 역사가 그것이다.

다른 생명체들과 판이하게 구별되는 '인간의 특성과 그 표현'은 외관상 매우 화려하다. 그러나 그 내면은 어두운 그늘이 두텁게 드리워져 있다. 인간 특유의 자기 전개와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가급적 희망의 얼굴을 마주하려고 한다. 두텁게 쌓인 인간 역사의 지층에는 절망과 회의와 혐오의 근거들이 더덕더덕 굳은살을 이루고 있지만, 긍지와 희망의 밝고 힘찬 지맥 또한 선명한 자취를 남기고 있다. 독특한 면모를 보이는 인간 생명의 희망은 과연 무엇인가.

절망의 근저에는 '자아'가 도사리고 있다. 인간은 그 고도의 '생각하는 힘'으로 강하고 질긴 '자아 의식'을 형성해 왔다. 부당하고 불필요하게 키우고 기른 에고(ego)는 그 '생각하는 힘'이 만들어 낸 이런 저런 분리의 벽에 갇혀 괴물로 변해 간다. 무지(엄청난 오해)는 그 유별난 사유 능력의 한 얼굴이기도 하다. 와 잘못된 편견과 부당한 선입견을 교묘하게 발전시키고 질기게 붙들면서, 탐욕의 불과 타자 부정의 칼날로 세상을 태우고 자신과 남을 벤다. 모든 생명이 본능적으로 회구하는 평안을 모질게 짓밟는다. 위험하고 해악적인 '에고의 문화'요, 생명 배반의 인간 역사이다.

이렇게 보면 인간 생명은 출발부터 '결핍되어 있다'. 그 고도의 사유 능력은 불완전하게 출발하였다. '비롯함이 없는 때부터 밝지 못한 생명(無始以來의 無明衆生)'이라는 말을 '애초부터 결핍되어 출발한 생명' 쯤으로 번역해 봄직도 하다. 무명(無明)의 출발시점을 설정하면 그 시점 이전의 "완전한 상태"를 설정하게 되니, 차라리 '출발점이 없는 무명'이라 말해야 한다('본래 부처', '항상 진리 그대로일 뿐'이라는 말은 시간 계열의 언어가 아니다. 無始無明 역시 그러하나 굳이 시간의 맥락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말이다).

그런데 비록 결핍으로 출발하였지만, 동시에 인간은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자질과 능력 (佛性) 또한 발전시켜 왔다. '자아 관념'의 허구와 허물을 통찰하고 극복하는 힘 또한 길러 왔다. '생각하는 괴물'을 '지혜의 빛'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틔우고 키웠다. 에고가 세운 겹겹의 분리 옹벽을 허물자, 막혔던 생명의 교류가 다시 트였다. 자기 주장과 타자 공격의 힘으로 변질되었던 생명 본래의 따뜻한 정감이 비로소 제 모습을 찾았다. 오해와 편견과 선입견에 막혀 '막고 밀치는 힘'으로 변질되던 사랑이, 이해가 바로 서자 생명을 보듬는 교감과 소통의 힘이 되었다. 분별 이성이 지혜로, 애착이 자비로 성숙한 것이다. 온전한 이해와 온전한 사랑은 동전의 앞 뒤.

두 다리로 서신 존귀한 분(兩足尊)! 부처님을 일컫는 말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인간 존재(兩足)가 지닌 희망의 가능성(지혜와 자비)을 완전하게 구현하신 분'으로 보고 싶다. 결핍과 불완전으로 출발한 인간 생명, 그러나 동시에 안게 된 희망의 씨앗을 틔우고 길러 그 분은 지혜와 자비의 두 다리로 완전하게 섰다. 인생(兩足)의 의미와 가치는 그 존귀함(尊)의 실현 정도에 달렸을 터.

▩ 울산대 철학과 교수

Q:참선의 공덕

A:지혜의 안목 열린다

참불자의 길 참선①-문답으로 푸는 참선수행

불교의 수행법 하면 대부분이 참선을 떠올릴 만큼 참선은 불자들에게 익숙하다. 하지만 왠지 방법적인 면에서는 어렵게 느껴져 고승대덕들이나 하는 수행법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면 참선 수행이란 무엇일까. 수행에 들기 전에 먼저 불자들이 궁금해 하는 몇가지 질문에 대해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이 대답해 주었다.

■참선 수행이란 무엇인지요

▲참선(參禪)이란 말에서 '참'은 생각함을 뜻하고 '선'은 산스크리트어 디야나(dhyana)에서 나온 말인데 역시 '사유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 불교문헌에서는 '사유수(思惟修)'라고 번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즉 참선이란 한마디로 말해 깊이 사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화두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하지요.

■참선 수행을 할때는 우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요.

▲우선 참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발전을 하기 위한 열의와 흥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쳐 수행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본래심을 체득하는 수행이니 만큼 오로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삿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건 시간의 길고 짧음에 구애 없이 신심을 가지고 생활화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선 수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Q:참선 수행이란 A:깊이 사유하는 것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의 남방불교권에서는 위빠사나 수행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북방 불교권에서는 선종의 화두(話頭)나 공안(公案)의 의미를 추구하는 간화선(看話禪)과 조용히 자신의 본성을 비추어보는 묵조선(默照禪) 등의 수행법이 있지요.

■참선을 할때 '결가부좌(結跏趺坐)'와 '반가부좌(半跏趺坐)' 자세를 취하는데 이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먼저 결가부좌는 오른발을 왼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고 왼발을 오른쪽 넓적 다리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손은 오른손 바닥위에 왼 손바닥을 올려놓고 두 손의 엄지를 맞댑니다. 또 반가부좌는 오른발을 왼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거나 왼발을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는 자세를 말합니다.

■좌선을 할때 호흡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호흡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단전 호흡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코로 들여 마신 숨을 횡격막을 통과시켜 배꼽밑 5㎝에 있는 단전까지 끌어 내렸다가 다시 내쉬는 호흡을 말합니다. 숨을 들여 마실때는 자연스럽게 힘을 지그시 주면서 아랫배가 나오도록 하고 숨을 내쉴 때에는 아랫배가 들어가도록 하여 숨이 단전이나 가슴에 남김없이 내쉬도록 해야 합니다.

■참선을 하면 어떤 공덕이 생기나요?

▲자기 자신의 참된 존재를 깨달아 분별망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참 자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활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불만족 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자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진실된 생활을 한다면 불만족이나 미혹, 초조와 불안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선 수행의 공덕이지요.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무불선원 시민선방에서 재가불자들이 좌선삼매에 들고 있다.

禪과 21세기

선어는 해설이 아닌 투과하는 것

㊶ 선과 언어 (5)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선에서 언어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설명이 백장회해(百丈懷海)의 어록에 보인다. 불교 경전 언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은 동시에 선에서의 언어 이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석가모니가 자신이 체험한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 했을 때 부딪쳤던 문제와, 선적 체험을 설명하려는 선사가 부딪치는 문제가 동일한 문제기 때문이다. 경전의 언어와 선의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은 방편설(方便說)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같다. 백장의 설명을 빌어 방편설로서의 언어를 살펴보자.

중생은 분별의식을 극복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듣기만 하면 그 말에 집착한다. 그러므로 분별의식을 극복하고 집착이 사라지는 해탈 체험을 중생에게 말을 통해 납득시키기란 대단히 어렵다. 진실로 이해한다는 것은 중생이 부처의 설명을 듣고 부처와 동일한 체험을 경험한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므로 부처의 말은 중생이 자신과 동일한 체험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말에 집착하여 말을 극복하지 못하는 중생에게 말로써 하는 설명이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중생에게 본래 불성이 있다'고 말하면 '불성'이란 물건을 따로 찾게 만들 수 있고, '불성이 없다'고 말하면 공적함에 빠지게 만들 수 있으며, '불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로서 혼란을 불러올 수 있고, '불성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말하면 말장난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불성의 유무에 관하여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모두 이 네 가지 [四句] 뿐이지만, 말에 집착한 중생에게는 넷 모두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부처가 설법에 앞서 부딪혔던 문제는 이와 같이, 말을 하지 않으면 진리를 전하여 중생을 구제할 길이 없고, 말을 해도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부처가 개발한 설법의 방식이 바로 방편설이다. 즉 방편설은 모든 경전에 기술된 불설(佛說)의 기본 성격이다. 백장은 방편설이 삼구(三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삼구는 초선(初善) 중선(中善) 후선(後善)이라고 부른다. 먼저 초선에서는 명칭과 견해를 세워서 삿된 길로 빠진 중생들을 올바른 길로 끌어들인다. 다음 중선에서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공부의 길로 들어선 수행자에게는 이제 모든 명칭과 견해가 임시로 거짓 가설된 방편임을 납득시켜서 명칭과 견해를 모두 버리게 한다. 마지막으로 후선에서는 방편을 세웠다가 무너뜨린다는 생각조차도 버려서 방편이라는 격식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방편을 쓸 때에는 이 삼구를 모두 통과하여야, 방편을 통하여 노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언어에 오염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중생에게 처음부터 바로 언어가 극복된 해탈의 세계를 말해주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 어차피 중생은 언어의 테두리 내에서만 그 말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언어를 관념적으로 받아들여 기억할 뿐, 언어를 넘어서 그 언어로써 가리키고자 하는 뜻을 바로 파악해내지는 못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임시로 방편상의 견해를 말하여 중생에게 불설을 긍정하고 따르는 신심을 갖추게 만들고, 일단 믿음을 갖추게 되면 불설로써 기존의 여러 가지 사견(邪見)을 하나 하나 파괴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견을 버리고 불설만을 굳건하게 믿게 되었을 때, 이제는 불설이 사견을 파괴하기 위하여 임시로 가설된 방편임을 알려주어서 불설마저 버려서 언어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편설로 사견을 파괴하고 방편설도 버린다 라고 하는 생각마저 놓아버려서 일체의 언어 관념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야 한다. 여기서 비로소 불설이 의도하는 바, 또 선이 목적하는 바의 불가사의(不可思議)한 해탈은 달성된다.

이렇게 해탈이 완성됨을 백장은 '삼구의 투과(透過)'라고 말한다. 이처럼 삼구의 투과란 불설의 기본 구조이며, 그것은 바로 파사현정의 구조임을 알 수가 있다. 따문에 백장은 삼구를 해설하면서 항상 강조하기를, 삼구를 투과할 뿐 결코 해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2001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통신80명	· 고등학교및 수학능력이 있는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 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30세이상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4년	■통신8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4년	■주간30명 ■야간30명		
중국어과 (한의대입학과정)	6개월	■주간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30명		

2.학교연혁

1989.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제9회 졸업생 배출
2000.1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2. 제10회 졸업생 배출(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과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2001년 1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02)511-2026~8
FAX. 02)511-1080
· 일본동경분교 : TEL. 055-233-184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인터넷홈페이지 : WWW.Buddhapia.COM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 화 불 교 대**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 — 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2026~8
FAX : 02) 511-1080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 중국최고국립한학대학◈

남경중의약대학 학생모집

1 모집학과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 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전문대,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여권용사진 3매
중의외과	5 년	
중약학과	5 년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군입대 연기가능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25-6798171 팩스 : 25-679816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UUTCM.EDU.CN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02)511-2026~8
FAX.(02)511-1080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